

대한상의 브리프

2017년 10월 23일



편집자주

데이터가 AI 개발과 산업혁신의 핵심 재료가 되면서 데이터를 수집·확보하려는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번 호¹⁾에서는 주요 기업들이 데이터 확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총성 없는 전쟁... 데이터 확보 경쟁

- 글로벌 기업의 데이터 수집 전략과 시사점 -

영국의 경제지 이코노미스트는 “데이터가 과거 원유처럼 성장과 변화의 원천이 됐다”라고 평가했다. 산업화 시대에 원유를 정제해 석유와 아스팔트부터 화학·의약품까지 다양한 제품을 만들었듯, 앞으로 기업들은 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사업을 무궁무진하게 내놓을 수 있다는 의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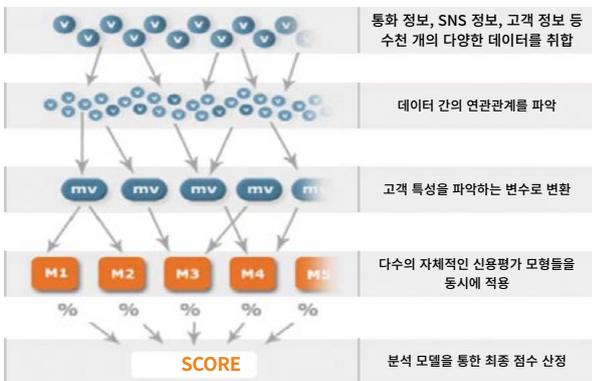
신용분석업체인 제스트파이낸스(ZestFinance)는 대출자의 통화기록 및 소비성향, 소셜네트워크 상에서의 활동 등 다방면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보다 정교한 신용평가 모델을 개발했다.

금융회사들은 이 모델을 활용해 상환의지가 강한 데도 신용도가 약해 제도권에서 자금을 빌리지 못하는 고객을 확보함은 물론 대출 연체율은 낮추고 수익은 20% 이상 올렸다.

데이터 활용 마케팅의 최전선에는 아마존(Amazon)이 있다. 기존 주문과 검색 내역, 구매 희망 목록, 마우스 커서 움직임 등을 기반으로 주문 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해당 고객 근처의 물류창고로 미리 발송해 놓아 운송시간을 최대한 줄이는 ‘예측 배송’ 서비스를 내놓을 예정이다.



[제스트파이낸스 신용평가 모델]



▲ 출처 : 한국정보산업협회



[아마존 예측 배송 시스템]

Ship Before They Buy



Amazon.com plans to ship you things before you even buy them. Using predictive analytics, the online retailer will guesstimate your next purchase.

▲ 출처 : bilderbergers.com

1) 조선일보 '4차 산업혁명, 이미 현실이 된 미래', '금융 빅데이터 전쟁' 기사 등을 참조해 작성

대한상의 브리프

대한상공회의소가 회원님께 드리는 최신 경제정보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는 측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방대하다.

온라인 쇼핑 결제 기록, 소셜네트워크 글, 인터넷 기사 댓글, 검색 기록, 사이트 가입 때 기입한 정보 등 모든 자취가 데이터로 쌓이고 데이터에 기반을 둔 혁신과 가치 창출은 더욱 확장될 전망이다.

미국 BSA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데이터 활용률을 1%만 높여도 미국 GDP 정도(15조 달러, 2011년 기준)의 부가가치가 새로 생겨날 것으로 예상된다.

데이터가 지나가는 길목을 선점하다

정보기술(IT) 기업들은 데이터 수집을 위해 하늘에 드론과 열기구까지 띄우고 있다.

소셜네트워크를 장악한 페이스북은 '아퀼라'라는 태양광 드론을, 검색시장의 절대강자인 구글은 '룬'이라는 열기구를 띄워 밀림, 사막 같은 오지에서 인터넷을 서비스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망을 장악해 이용 데이터를 통째로 끌어모으겠다는 것이다.



[페이스북 인터넷 드론 '아퀼라']



▲ 출처 : 조선비즈

마이크로소프트(MS)는 세계 최초의 해저 데이터 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MS 측은 "해저 데이터 센터는 별도의 냉각시스템이 필요 없다"라며 "세계 인구의 50%가 해안가에 거주하는 만큼 주요 해안도시마다 해저 데이터 센터를 설치하면 방대한 데이터를 가장 빠르게 모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MS 해저 데이터 센터]



▲ 출처 : 조선비즈

정보를 찾아 경계를 넘나들다

온라인을 기반으로 성장한 아마존은 지난 6월 미국 최대 유기농 식품 판매 체인 홀푸드(Whole Foods)를 137억\$에 인수했다.

아마존의 홀푸드 인수에는 식료품 분야 진출 이상의 의도가 담겨있다.

홀푸드가 미국, 캐나다, 영국에 걸쳐 보유한 440개 매장을 단숨에 확보해 오프라인에 머물고 있는 판매자와 고객들을 온라인으로 끌어들이고 온라인으로 알 수 없는 오프라인 소비자의 동선, 취향, 구매 패턴 등을 관찰해 온·오프 시너지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대한상의 브리프

대한상공회의소가 회원님께 드리는 최신 경제정보



[홀푸드를 인수한 아마존]



▲ 출처 : <http://blog.naver.com/villaapp/221035959014>

애플이 작년에 중국 최대의 차량 공유 서비스인 ‘디디추싱(滴滴出行)’에 투자한 것도 데이터 확보와 관련이 있다. 중국판 우버로 불리는 디디추싱은 사용자가 3억명에 달한다. 애플은 디디추싱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자율주행차 개발에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자율주행차는 각종 첨단 장비가 탑재되고 통신 네트워크와 연결돼 다양한 정보와 콘텐츠를 제공하는 ‘달리는 스마트폰’으로 기능할 전망이다.

마음속의 생각을 읽어내다

정보를 끌어모으는 단계를 넘어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게 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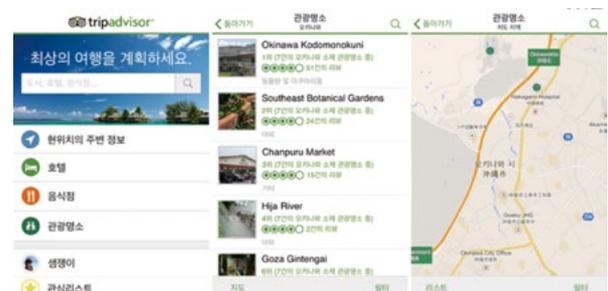
전 세계 여행자들이 사용하는 트립어드바이저(TripAdvisor)는 여행안내서를 대체했다. 사용자들은 스마트폰으로 여행지 주변의 명소와 맛집들을 검색하고, 실시간으로 방문자 후기를 참고하며 여행을 즐긴다.

특히 기존 여행안내서처럼 관련 정보를 일방적으로 찾아서 전달하는 방식이 아니라 참가자들이 스스로 사진과 경험담을 올리는 방식을 채택해 단기간에

4억여명의 가입자를 확보하여 방대하면서도 정확한 정보를 축적할 수 있었다.



[트립어드바이저 모바일 앱]



▲ 출처 : <https://brunch.co.kr/@hotelscomkr/6>

최근 네이버, 카카오를 비롯한 인터넷 기업들이 ‘음성인식 스피커’라는 하드웨어 시장에 뛰어드는 것도 정보 수집과 관련이 있다.

음성인식 스피커는 사용자가 말로 날씨, 금융, 교통 등의 정보를 물어보거나 상품을 주문하면 이를 인식해 답을 알려주거나 필요한 작업을 진행해 주는 기기이다.

음성인식 스피커가 갈수록 많은 가전이나 냉난방 등 홈 기기와 연결되면 소비자들 집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어떤 서비스를 원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스피커를 통해 쌓이게 된다.

음성 정보는 복잡한 절차나 글쓰는 부담 없이 말만 하면 되므로 제공자의 거부감이 낮고 가공되지 않은 진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런 데이터를 모으는 관문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들이 음성인식 스피커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다.

대한상의 브리프

대한상공회의소가 회원님께 드리는 최신 경제정보



[주요 업체들의 음성인식 스피커]



▲ 출처 : 업계 종합

뒤쳐진 한국 ... 관련 규제완화가 절실하다

구글 및 아마존 등 유수의 IT기업이 아닌 대부분의 기업들이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데이터를 수집하기란 애초부터 쉽지 않다.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이 의사결정의 질을 높이거나 실제 경영 성과와 정확히 비례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이전에는 인지하지 못했던 새로운 메가트렌드를 발견하거나 혹은 간과하기 쉬운 미세한 변화를 경쟁기업 보다 빠르게 탐색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나라 중 하나이다. IT 환경이 우수하면서 신용카드 사용액 비중 세계 1위이며 보건·의료 부문, 지방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매일 수많은 데이터가 쌓이고 있다.

그런데 활용도는 매우 낮다. 시장조사기관 테크프로에 따르면 글로벌 기업의 29%가 데이터를 경영에 활용하는 반면 우리 기업은 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기업들의 인식 부족도 있지만 정보 수집 및 활용 단계마다 사전동의를 요하는 지나친 규제가 작용한다.

미국 등 선진국은 악용에 대해서는 배상 등으로 엄격히 책임을 물리는 대신 정보 수집과 활용을 폭넓게 허용한다. 우리도 개인정보에 대해 수동적 보호 중심에서 능동적 활용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기업들도 무작정 정보를 축적하기보다는 자사의 수익창출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데이터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목적에 맞는 데이터 수집 및 시스템 구축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

국내·외 경제지표

2017년 10월 23일 기준

1. 국내·외 경제성장률

(단위: %)

	2015	2016 ^(E)	IMF		OECD	
			2017 ^(P)	2018 ^(P)	2017 ^(P)	2018 ^(P)
한국	2.8	2.8	3.0	3.0	2.6	2.8
세계	3.4	3.2	3.6	3.7	3.5	3.6
미국	2.6	1.5	2.2	2.3	2.1	2.4
중국	6.9	6.7	6.8	6.5	6.6	6.4
일본	1.1	1.0	1.5	0.7	1.4	1.0
EU	2.0	1.8	2.1	1.9	1.8	1.8

* E : 잠정치(Estimate) / P : 예상치(Projections)

2. 환율·유가¹⁾

(단위: 원(환율), 달러(유가))

	2015	2016	'17.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원/달러	1,131	1,161	1,133	1,125	1,130	1,134	1,131	1,132
원/엔	934	1,068	1,029	1,003	1,019	1,009	1,030	1,022
원/위안	180.1	174.4	164.5	163.5	166.1	167.5	169.2	172.3
원/유로	1,255	1,283	1,213	1,245	1,269	1,306	1,337	1,348
유가(Dubai)	32.2	53.8	50.2	50.1	46.5	50.4	49.3	55.2

3. 산업지표

(단위: %(전년동기대비))

	2015	2016	'17.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산업생산	1.9	3.0	3.5	2.6	1.7	2.0	2.6	-
소매판매	4.1	4.3	2.6	1.4	1.1	3.5	0.8	-
설비투자	6.9	-1.3	14.3	20.0	18.6	25.1	13.2	-
수출	-8.0	-5.9	23.8	13.1	13.4	19.5	17.3	35.0
수입	-16.9	-6.9	17.3	19.1	19.8	15.5	15.3	21.7

1) 환율은 월 평균 기준, 유가는 기말 기준